

# “미디어 무한경쟁 시대...100년 미래 열겠다”

최재호 광주매일신문대표이사·사장 취임

기자·직원 성장 위한 교육 등 투자  
디지털 플랫폼·새로운 콘텐츠 조성  
故 마형렬 회장 ‘막히면 뚫는다’ 유지  
마찬호 회장 “온라인 영향력 극대화”

“미디어 무한경쟁의 시대에 광주매일신문이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매일신문 본사에서 ‘최재호 대표이사·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마찬호 광주매일신문 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 회장, 윤병희 연와이인포텍 대표이사 등 광주매일신문 임직원과 남양건설 건부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국민의례, 최재호 대표이사 취임사, 마찬호 회장 축사, ‘이루자’ 구호 제창, 폐회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 대표이사는 “취재 기사보다 조회수가 높은 흥미 위주의 기사가 우선시되는 등 언론 환경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또 속칭 ‘재래식 언론’들은 유튜브에 주도권이 넘어간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



15일 광주 남구 광주매일신문 본사에서 마찬호 회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재호 대표이사·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최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보 임직원 등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김예리 기자

다”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직시했다.

이어 “직원 1명의 능력이 곧 광주매일신문의 경쟁력이다. 직원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며 “공정하고 기회가 부여되는 인사와 열심히 하는 구성원이 대접받는 진정한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과 변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구성원과 소통과 배려 등 상호존중을 통한 가족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며 “고(故) 마형렬 회장의 ‘막

히면 뚫고, 닫히면 연다’는 유지를 받들어 광주매일신문만의 디지털 플랫폼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마찬호 광주매일신문 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회장에 취임하면서 광주매일신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신임 최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지역신문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대표이사와 구성원 모두가 뚫을 동진다면 ‘광주매일신문의 제2의 도약기’를 이

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이신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라인 매체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 신문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편집국장의 선장에 맞춰 마찬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루자’ 구호를 제창하며 최재호 대표이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광주매일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연상 기자

전병현 제49대 광주 서부경찰서장 취임



전병현(사진) 제49대 광주 서부경찰서장이 15일 취임했다.

전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헌신한 전임 박종열 서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광주의 중심이자 치안 1번지인 서부경찰서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일하게 돼 크나큰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경찰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응답하는 경찰이 되겠다”며 “모든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전 서장은 장성경찰서장, 전남청지경장정래과장, 광주청 경역범죄수사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연상 기자



영광경찰, 학생 맞춤형 합동 순찰

영광경찰서는 “최근 읍내 일원에서 학생 맞춤형 특색 치안의 일환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외국인치안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 및 범죄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학생 통행이 많은 주요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전단지 및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하고 시간대 학생들의 체감안전도 향상과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함께 학생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호남대, 개교 48주년 기념식...“AI 융합교육 강화”

30년 장기근속자·우수 교직원 표창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는 15일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개교 48주년 기념식을 갖고, 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합교육 강화와 지역 인재 양성 등 미래 대학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건 이사장과 박상철 총장, 김장승 총동장회장, 법인 이사회 등 내빈과 교직원,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48주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세월의 누적이라기보다, 설립자의 교육에 대한 강인한 열정과 뜨거운 헌신 그리고 수많은 동문과 구성원 모두의 땀방울로 만들어



낸 위대한 유산”이라며 “불굴의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다음 세대가 더 높이 비상할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박상철 총장은 “개교 48주년을 맞는 오늘이 호남대가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

을 위해 대대적인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으로 AI 시대에 부응하는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강은주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가 30년 장기근속상을, 한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김동희 학생처 학생지원팀 과장이 우수 교직원상을 수상했다.

한편, 1978년 육영보국의 설립 이념으로 창학한 호남대는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선 혁신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왔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 ‘AI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AI 역량 강화를 통한 전교생 AI 융합 교육은 물론, AI 기반 지산학연 협력과 전 국민의 AI 대중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선욱 기자

# 목포농협, 농촌일손돕기·마을환경 정화활동

목포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및 마을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15일 목포농협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목포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농가주부모임 회원,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신문지부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농작업 지원과 마을 주변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고령·장애 농가를 중심으로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한편 농경지와 마을 주변의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목포농협은 매년 농번기와 수확철에 맞춰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농촌 환경 정화활동을 병행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힘을 쏟았다. 박정수 조합장은 “앞으로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와 취약농가를 적극 지원해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도 목포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전남도, 폭염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나눔 캠페인’

전남도는 15일 도청 운전도호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우리전남 희망여름 취약계층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하절기 이웃돕기 성금 집중 모금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허영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형성 전남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은주 전남사회복지사업회장,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전남 희망여름 취약계층 나눔캠페인’은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등 생활 속 나눔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그동안 연말·연초에 진행했던 모금 캠페인을 하절기까지 확장해 기업과 도민의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7월15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2천400여가구에 3억원 상당의 여름물품 키트를 지원



한다. 여름물품 키트는 선풍기, 여름이불세트, 이온음료, 물티슈, 포도당캔디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성금 기부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061-902-6800)하거나 ARS(060-702-1004)와 캠페인 계좌(농협301-4000-300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입금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 구례 문척지사협, 취약계층 지원 기금 전달

구례군 문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14일 열린 문척수박축제에서 취약계층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협의체 위원들은 축제기간 동안 직접 먹거리 판매에 참여하며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탰다.

행사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긴급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사협 관계자는 “축제를 찾은 많은 주민들이 먹거리 부스 이용으로 나눔 실천에 동참해



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 담양 월산지사협, 경로당에 직접 재배한 감자 나눔

담양군 월산면은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함께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경로당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 위원이 유휴지를 무상 제공해 마련된 재배지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키운 감자를 수확해 경로당 27곳에 나뉘었으며, 판매 수익은 내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효정 월산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자 수확에 힘써준 협의체 위원들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적십자사, ‘천사하모니 봉사회’ 결성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천사하모니 봉사회’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성식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운영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인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식과 함께 진행됐다.

지난 2월 신안 지역 결혼이주여성 20명이 입학한 레드하모니 학교는 AI 활용 교육, 자녀교육 지원, 제법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 역량을 강화했다.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생들로 결성된 천사하모니 봉사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 통역 봉사,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봉사회가 신안을 대표하는 다문화 전문 봉사 조직으로 성장해 지역사회 통합과 나눔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결혼

▲임춘수·신미경씨 장남 후성(한국섬진흥원 선임공, 유문상·조미숙씨 차녀 헤인양=20일(토) 오후 12시10분 드메르 웨딩홀(신안) 1층 지젤홀.